

‘완도자연그대로미(米)’ 러시아 시장 진출...품질 인정받아

연간 150톤 내외 · 5년간 700톤 규모 수출 협약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 사업 추진 계획

완도군은 지난 19일 완도농협연합RPC에서 완도 쌀인 ‘완도자연그대로미(米)’를 러시아로 수출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장 및 군 의원, 농촌진흥청, 전남농업기술원, 농협중앙회 완도군지부, NH농협무역 관계자, 완도농협조합장 및 읍면 조합장, 농업인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러시아 수출 길에 오른 ‘완도자연그대로미’ 18톤은 NH농협무역을 통해 22일 부산항에서 선적, 러

시아 사할린 코르시코프 항구에 도착하면 사할린주 우즈베크 쌀시장, 블라디보스토크 마트 등에 풀리게 된다.

특히 연간 150톤 내외, 5년간 700톤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게 됐다.

‘완도자연그대로미’는 전남남도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새정무 품종으로 전남 대표 브랜드로 선정되었으며, 밥맛이 좋아 소비자들에게 호응이 좋다.

완도군은 2017년부터 쌀 수출

판로를 개척하여 왔으며 할랄 인증을 획득한 후 2018년 말레이시아로 2019년도에는 미국 뉴저지로 수출했다.

완도군은 품질 좋은 쌀을 생산·유통하고자 미국종합처리장(RPC)시설 보완과 농립축산식품부 고품질 쌀 유통화 공모 사업 선정으로 산물벼 건조·저장시설(DSC) 신축을 위한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하여 기반 시설을 정비했다.

아울러 계약재배단지(250ha)에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교육, 현장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쌀을 재배하고 있는 정종호 씨는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과 함께 미역, 굴 껍질, 바닷물, EM액비, 아보티베 등을 활용한 농법 개

발로 맛과 품질이 좋은 쌀을 생산하여 러시아까지 수출하게 돼서 보람된다.”고 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말레이시아, 미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수출 판로를 확대한 것은 완도자연그대로미(米)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품질을 인정받았다는 증거이다.”며 “앞으로도 완도 쌀의 브랜드 경쟁력을 갖춰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 농업 정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에서는 최고 품질 쌀 생산거점단지, 쌀·잡곡 수출, 색깔보리 특산화, 가공 쌀 사업 등 다양한 시범 사업을 통해 완도 쌀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하여 유기질 비료, 토양 개량제, 유기농상토, 친환경 농자재,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병해충 공동 방제사업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도=김영일 기자

강진군, 주민주도 사회혁신 공모사업 ‘차이나는 배달소’ 운영

11월까지 군내버스터미널서 5일장 운영



강진군 ‘차이나는 배달소’가 전신 공모사업에 2019년 ‘성전면 일리내마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돼

이달 19일부터 올해 11월까지 강진군 군내버스터미널에서 5일장(4일, 9일)에 운영된다.

주민주도 사회혁신 공모사업은 주민이나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주체가 주도해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민관협력의 사업이다. 문제 해결의 주체가 주민이라는 점이 핵심 요소이다.

‘차이나는 배달소’의 사업명의 ‘차이나는’은 사업수행 주체가 청년이고 사업대상자가 노년으로 나이 차이가 나는 것을 의미한다. 오감통시장의 주요 고객인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장보기 대행, 장바구니 대여, 물품 보관 및 배송 등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또한 배달소는 지루한 대기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안전교육 등 각종 교육과 함께 간단한 공예품 만들기 등 같은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19일 사업 설명 및 홍보에서 한 주민은 “거동이 불편해 장보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청년들이 와서 도와주고, 말벗이 되어주니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표현했다.

이승욱 군수는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시장 이용객이 증가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강진군,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선정

‘맘(mom)편한 우리아이 돌봄 종합지원센터’ 조성

강진군이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0년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4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청장년층 인구 유출로 인구 급감의 문제를 해결하고 합계출산율 0.92명이란 초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24일 공모를 시작해 전국 34개 지자체의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서류심사, 현장실사 후 강진군을 포함한 최종 5개 대상지가 선정됐다.

군은 사업비 총 8억을 들여 강진읍 서성리(구 농업기술센터) 일대에 330㎡ 규모로 ‘맘(mom)편한 우리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를 ‘강진맘편한센터’와 같은 공간에 조성하며,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농촌의 긴급 돌봄 및 말벗이 가정 자녀들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여 주민들이 바라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보육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인구감소 공모사업 선정으로 2018년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조성사업’에 4억, 2019년 ‘결혼이주여성의 예비창업공간 누구나 가게’에 1억, ‘강진에서 모여 락(樂)’에 3억6천만 원, 올해 상반기 ‘강진청사진 프로젝트 - 빈집 활용 청년일터·살터·놀이터 조성’사업에 3억 원, 행안부 ‘외국인주민 쉼터 조성’사업에 3억을 확보하는 등 인구감소에 대응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준범 일자리창출과장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어린이의 돌봄을 지원하고, 젊은 세대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 기능을 제공해 농촌에서 향유하기 힘든 문화생활을 제공하려고 한다”며 “도시재생센터와 연계한 ‘강진맘편한센터’와 연계한 맘(mom)편한 우리아이 돌봄종합지원센터 조성으로 말벗이 가정을 위한 야간돌봄, 단기 돌봄을 강화해 육아에 도움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흥군, 연안 정화의 날 행사 개최...‘해양쓰레기 제로화’ 도전



장흥군은 지난 19일 안양면 수문해수욕장에서 ‘연안 정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7월 10일 수문해수욕장 개장을 대비한 것으로 깨끗한 바다환경 유지를 위해 개최됐다.

군은 올해 여름철은 코로나19

의 영향으로 야외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청정 지역인 장흥군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안 정화활동에는 공무원, 주민, 바다환경지킴이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생활 쓰레기

와 바다에서 해변으로 밀려온 쓰레기 2톤을 수거했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매월 1회 셋째 주 금요일을 ‘연안 정화의 날’로 지정해 해양쓰레기 제로화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함평천지농특산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함평천지 농특산품을 만나보세요.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 Tel 061-324-8331